



음악회
두장의 초대장

가을산사 울려 퍼질 음의 향연

13일 진천 보탑사 '2002년 월드컵 성공기원' 15일 봉화 청량사 '받는 불교서 주는 불교로'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얻는다. 또한 음(音)과 음(音)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물코의 매듭처럼 하나 되게 하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산사에 가 보자. 좋은 사람과 함께, 음악이 있고 자연이 숨쉬는 깊은 산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을 찾아보자.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보탑산 자락의 연꽃골에 자리한 보탑사에서 열리는 '보탑사 산사음악회'가 13일 저녁 8시에 막을 올린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보탑사 산사 음악회는 이미 진천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보탑사 음악회의 특징은 참가자가 전원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주제는 '온 마음으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자'는 것이다.

지난해의 성황에 힘입어 올해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동원씨와 김국환씨 등 중장년층에 인기 있는 가수들을 비롯해, 국악과 가요를 접목시킨 소리꾼 장사익씨의 공연도 준비된다. 또 우리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준호 손실심 부부가 신명나는 소리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남성합창단과 삼선포교원 합창단이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찬불가를 연주하고, 삼선포교원 승가대학 학인스님들도 평소 뛰어난 노래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스님의 승무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인 자연스님의 대금연주도 곁들여진다. (02-923-0582)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천년의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이 궁금하다면 15일 저녁 6시 경북 봉화 청량사 청량사에서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찾아보자.

경북 봉화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풍기 등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산사음악회는 매년 열리는 청량문화제와 함께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적 색채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주지인 지현스님은 청량사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마을회관 등을 빌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법회를 여는 등 고정 관념을 깬 포교활동을 통해 경북지역 어린이 청소년 농민 포교의 중심도망으로서 청량사의 면모를 가다듬었다.

이번 음악회에는 소리꾼 장사익씨와 그의 국악 연주팀 노를마치, 가수 한영애, 안치환 등의 대중가수와 성악가 최홍준교수(안동대), 청량사 신도모임 대지대생인 이인영 양이 노래와 시낭송을 한다. 또 젊은 불자 국악인 성상희씨가 가야금 연주를, 하우스님이 법고연주를 할 예정이며, 김현숙 무용단이 살풀이춤과 불음가수 심진스님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054-672-1446)

이른자 기자 eeie@buddhapa.com



좋은 사람과 함께, 음악이 있고 자연이 숨쉬는 산사음악회를 찾아가자.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장면.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님의 침묵〉의 회자가 보여주는 간절한 그리움은 시인의 어린 경험에서 우려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한용운이 1919년 3·1 운동을 주도했으며 그 결과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백담사는 출옥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도 생각났다. 그는 백담사에서 머물던 불교 및 개월 사이에 〈님의 침묵〉 90편의 시를 일일휘자로 써내려 갔던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시가 이미 성숙되어 있었고, 백담사의 안정된 환경 속에서 가슴 속에 저장되었던 '시심(詩心)'이 분출되어, 그는 터져 나오는 구절들을 단지 받아 적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착상은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의 수감생활 중에 시(詩)들이 마음 속에서 프드송이처럼 영글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등고고독한 감방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그때, 역설적으로 한국 시사(詩史)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사랑의 증도(證道)'가 태어났던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인생 다른 인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 자(字)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난제" 자이니라." 부처님은 인생의 깊은 사색(思索)에서 찾게 되고, 풀라고 가르쳐 주셨다. 깨달음과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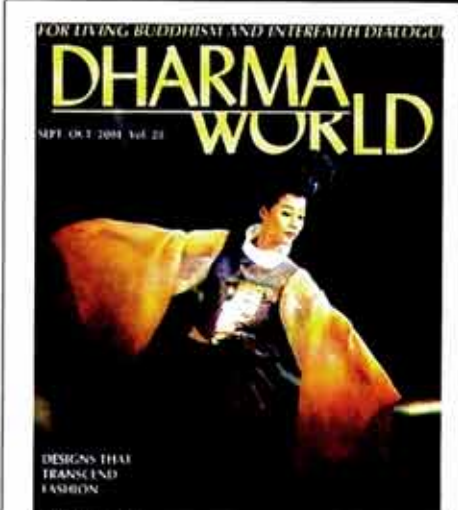
로움이라는 사실에는 인생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위대한 사상과 예술이 나오는 것은 신비로운 인과의 섭리이다.

바다 속 진주조개가 입을 열고 닫을 때, 어떡도 모래 한 알이 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나 부드러운 조개 속살은 그 모래 한 알이 주는 고통(苦痛)을 참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죽어라 모래알에 분비물을 쏟아 붓는다. 그 분비물이 굳어져 부드럽고 영롱한 한 알의 진주가 탄생한다. 진주에게나 인간에게나 고통은 보석을 잉태하는 씨앗이다.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 동지들을 모아 불교의 자비와 평화정신을 입각하여 거룩한 3·1 평화선언을 선포하였지만, 선언에 서명한 33인의 대부분이 체포된 후 변절하여 해명서를 쓰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 끝까지 남은 이는 한용운 하나 뿐이다. 나라 잃고 동지마저 잃고, 사방천지가 깔깔한 감옥 속에서 일제의 협박과 회유를 견뎌나가는 그 처절한 심정이 어땠을까? 해방과 광복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1920년대 초반, 모두 석방되고 홀로 감옥에 남아 민족의 가련한 운명에 눈물 흘릴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떠나간 '님'에 대한 연민과 설움이 북받쳐 올랐을 것이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용운은 남마다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았을까?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에서는 고려가요 한 편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가시리 가시리이고 바리고 가시리이고 날리는 어찌 실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이고..." 이 노래는 그의 울 중에서 반복되며 수십 편의 버전(版本)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백담사에서 완성된 시가로 터져 나왔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이기향 교수 불교의상과 이기향 교수 日 '달마월드' 표지사진
한성대 의상학과 이기향 교수와 불교를 주제로 한 의상 작품이 국외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작품이 일본 법화계열의 중요 종단인 릿쇼고우세이(立正佼成會)가 발행하는 영문잡지 〈달마월드(DHARMA WORLD)〉의 표지사진으로 선보인 것. "패션을 초월한 디자인"이란 제하의 표지와 함께 커버 스토리에서도 이 교수의 〈법화경〉에 대한 해석과 의미,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한 불교의 세계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전문 예술잡지 〈오너먼트(ORNAMENT)〉에도 그의 작품세계와 불자로서의 인생관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은자 기자

누비장 김해자 씨 '누비전시관' 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씨가 지난달 경북공예전에 전통누비전시관을 열었다.

"우리 전통 누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누비의 전통을 이을 제자 양성"이 김씨가 전시관을 연 이유다.

현재 김씨의 문하에서 우리 전통 누비의 맥을 잇고 있는 수제자는 5명. "누비 작업 자체가 워낙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누비의 전통을 살리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전시관을 열게 됐다 한다.

지하 1층 지상 1층 총 18평 규모의 이만한 누비전시관에는 김씨의 누비 작품과, 축, 종화 염색작품 50여점이 전시 중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매월 둘째 목, 금요일에 누비강좌도 열 계획이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주에 문을 연 누비 공방에서도 작업과 제자양성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김씨는 "우리 조상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우리 옷 누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누비 작업 중인 김해자 씨

문화소식

임흥 - '한지에 담은 仙境'

새로운 감각과 특색 있는 운치의 비경을 그려내는 한국화가 임흥씨의 초대전이 5월 - 18일 인사동 선화관에서 열린다.

임씨는 2년 동안 전국의 정자를 찾아다니며 여러 풍경들에 대한 감흥을 스케치하고, 이를 화폭에 재구성했다. 그것은 노력에다 그림의 바탕인 한지를 치자, 갈음, 쪽물 등을 이용해 40여점이 선보인다. (02-734-0458)

유형숙 - '한국인의 얼굴'

들 위에 표현된 삼존불과 아기보살의 미소, 어디선가 만난 듯한 소년의 얼굴. 5월 - 11일 인사동 공회관에서 열리는 조각가 유형숙씨의 조각전에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미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사대부속여중에 재직 중인 조각가 유씨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02-735-9938)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수용습수와 방습기능은 일반면의 4배, 두중이나 피로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은 직물성상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 32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